

중국을 주께로

제 6 호

1990. 6.

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的末了（馬太福音 28 章 19~20 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표지설명 : 중국의 성도들)

차례

1. 준비하는 자 / 이동화
2. 사막의 단쟁 (말씀묵상)
4. 중국의 조선족 교회현황 / 김인철
7. 중국기독교 인물 소전
10.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사무국에 대한 고찰
16. 각부 활동 보고
17. 회원동정, 기도제목
18. 광고

中國語文宣教會

준비하는 자

이 동 화 (본 선교회 총무간사)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언초에 불어다친 동구의 탈공산주의 바람에서부터 최근의 한,소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 최후의 냉전지대로 불려오는 한반도에까지 변화의 바람이 밀어 닦았으니 가히 세계적인 해빙 무드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정세하에서 동토의 땅 사할린에도 한인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공산권인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얼마전 중국에서는 6.4천만문 사태 일주년을 맞아 정치 학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내에 군인들을 진주시켜서 학생들의 동태를 삼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 앞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혁명 이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완멸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회의등 이른바 신념의 3중위기에 처해있다. 관계 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공산당 입당자 수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에 입교한 자는 평균 3,4배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지식인과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성경이 진단하

고 있는대로 그들은 지금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전 출판 관계로 큰 기독교 출판사를 찾아갔다 슬픈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유인즉 그 출판사에서 출간한 중국 선교와 관련된 5권의 책 중 한권만 독자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적자 였다는 것이다. 중국선교야 말로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외쳐대는 교계에 출간 1년 내에 2000권도 소화되지 못한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륙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은 즉시라도 모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꾼은 1,2년내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긴 예수님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 할 것을 당부하지 않았던가? 지혜로운 다섯처녀 비유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듯이 이곳에서 준비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사막의 단상

(번역부 제공)

“**믿는 자에게는 능
치 못할 일이 없느
니라**” (막 9:23)

하나님께서 때때로 많은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일부러 지연시키실 때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부”를 시키시려는 까닭에서이다.

“**믿음의 대학**”에는 많은 필수과목이 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실습**」, 「**믿음의 인내**」, 「**믿음의 강건함**」, 「**믿음의 승리**」 등 많은 시간을 들여 배워가야 하는 과목들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무지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감각적인 것의 의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게 될 때 우리의 능력과 체험은 자랄 수 있게 된다.

성경 중의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은 처음에는 결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소임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잠시 요셉의 예를 들어 보자.

시편 105편 19절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를 단련하셨다는 것은 감옥 생활의 고초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어린시절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그가 다른 형제보다 더 고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요셉의 생애를 살피볼 때 거의 실현될성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땅히 벌받아야 할 사람 대신에 혼자 외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 것이다. 그는 감옥속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일부러 지연시키셨다. 이는 그가 절망 중에도 더 많은 믿음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셨으니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시편 105:19)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의 사랑과 인내를 보시고 그의 형제들을 맡기셨고, 드디어 그를 자유케 하셔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 주신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아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
이야말로 믿음의 훈련이요 이로써 우
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벧전
1:7)

〈원문〉

五月十二日

在信的人，凡事都能。(马可福音 9：23)。

不合理的要求，神固然不会答应；但许多合理的要求，神有时也故意耽延，目的是要教导我们学习信心的功课。

信心好比一所大学，里面有许多必修课程：信心的考验，信心的学习，信心的忍耐，信心的毅力，信心的得胜等。这些都是要花时间来学习的。

如果你向神祈求了，答应还不来临，你该怎么办呢？你要相信神的话语，不要因眼见或感觉而动摇；这样，你的能力和经验都会增长。

圣经中的伟人如亚伯拉罕、摩西、以利亚，都是受过信心的训练才能胜任神给他们安排的工作。

举个例说：约瑟面临的考验，并不是囚犯生活的苦楚，而是神以前在梦中告诉他他要“比哥哥们尊贵”这应许。

可是，他现在含冤下狱，百词莫辩；多次祈求神给他自由，都得不到应允。原来，神要叫他在绝望中多学习信心的功课，就故意拖延。等到他的灵性长进了，“他所说的应验了”，神认为他有爱心和忍耐来对待哥哥们，才把他放在首相的地位上。

当神宣布了他的心意后，却久久不实践，这样的经历实在非常难受。但这是信心的训练，使约瑟更能认识神。

“你们的信心既经试验，就比那被火试验，仍然能坏的金子，更显宝贵。”(彼得前书 1：7)

(「荒漠甘泉」中에서)



아래 기사는 『빛과 소금』 6월호에 실린
본 중국어문선교회 소개 내용입니다.

“중국어 몰라도 중국선교 가능”

중국어문선교회, 도서 발간 등 활동 활발

중국어문선교회 회장 박성주 박사(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교수)는 최근 두란노서원을 통하여 「기독교와 중국」이라는 국내 최초의 중국선교 화보집의 출판을 준비하는 등 몇 권의 중국선교와 관련한 도서의 출판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번역을 끝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와 중국」은 중국인이 저술하고 모은 글과 기독교에 관계된 희귀한 사진이 실린 화보집이며, 이미 번역을 끝낸 「중국기독교백년사」(중국인이 저술한 책)의 출판은 물론, 올 9월에 열릴 북경아시아게임 이전에 중국선교정보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국선교핸드북(China Mission Handbook: 조나단 차우 저)」의 번역도 서두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방송통

신대학 중국어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중국어문선교회는 총무·연구·번역·출판·정기간행물발간 등의 사역을 통해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동송교회에서의 중국어 성경공부 등의 교육훈련도 실시중이다.

한편 박 회장은 “가는 것만이 전부라 아닌 것이 중국선교의 특징”이라고 말하며 “지난해만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한국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2만 명의 교포들이 입국하여 평균 3개월씩 체류하였다”고 전제한 뒤, “이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며 중국어를 몰라도 중국선교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일의 추진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연락처 720-4312).

* 선교자료안내 : 본 선교회에서는 선교 중국어 교재로서 “사도신경 외”(사도신경, 주기도문, 사영리 및 은혜로운 찬송가등이 실린 녹음테이프도 있음) ‘經文背誦’(60구절 암송책자 녹음수록) “天愛生活之道”(대만 주일학교교재) 및 주음부호가 표기된 “중국어 신약성서” 등의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내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교회현황

김인철 전도사

(중국요녕성 철령시)

1. 조선족의 역사

일본인의 중국점령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일본인이 많았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이등국민이라 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으나 중국이 해방되던 시기에는 중국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 왜냐하면 조선족 가운데는 일본에 속해 있으면서 중국 혁명에 참여하지 않아서 거의 비판을 받았으며 그때 당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은 죽음을 당하거나, 모진 때를 맞거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형편에 있었다.

해방초기와 비교해 볼때 지금의 형편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고 보여진다. 조선인들이 해방초기에 차별과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었던 역사에 대한 과오는 다 씻어내게 되었다. 조선인들은 여러부문에서 공헌을 하게 되었고 더욱이 조선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우월하고 부지런하다는 인상을 남겨주게 되어서 어디서나 조선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역할

중국은 중앙으로부터 省, 市, 縣, 鄉으로 조직되어 있다. 각급의 정부에 가게 되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중국의 군사위원회의 주석인 등소평 밑에는 부주석이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명이 조선족으로서 조남기씨이다.

3. 조선족의 인구분포와 통계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

실제로 중국의 요녕성에 80만명, 길림성에 110만명, 흑룡강성에 90만명 등 총 280만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180만명으로 잠정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집계상의 차이는 초기에 중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호구를 바꾸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해방 후 중국인은 조선족을 심하게 차별했는데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와서는 혁명적 성분을 가릴 때 중국인과 비교하여 한 단계 떨어졌다. 즉 같은 조건하에서도 조선족은 한단계 낮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남자들이 모두 군대에 가야 하지만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군대를 가기로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하에서도 중국인이 먼저 선택되므로 조선족은 거의 군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간부 진급에 있어서도 중국인보다 능력이 월등할 지라도 조선족이기 때문에 진급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각급 정부에 조선인이 소속되어 있지만 제일 정주임(우두머리)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며 부급(副級)이나 담당실무자의 자리거나 진급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어버렸다. 또한 청년들도 자라면서 중국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치주에 있던 사람들중, 자치단체장이

나 자치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중국인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100만명이란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4. 조선인들에 대한 혜택

81년부터 약소민족에 대한 우대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족에게는 벼농사에 공헌이 있었고 또 쌀을 좋아한다고 하여 중국인에게 10근의 배급을 주면 조선족에게는 20근을, 지식인에게 15근을 주었을 때도 조선족 지식인에는 30근을 나누어 주었다.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모든 기업은 사업을 시작하면 3년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 호적으로 바꾸었던 조선족들이 지금은 원래의 호적을 되찾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던 75년도 말기부터 “計劃的生産”운동으로 한 가정에 한자녀만 낳 수 있었을때에도 조선족들에게는 두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선족으로 복귀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86년도에는 두자녀가 모두 딸일 경우 아들을 낳기위해 하나를 더 낳을 수 있는 특권마저 부여 받았다.

5. 조선족 교회에 대한 현황

1) 조선족 교회의 형성

조선족들이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으로 흥경에 남만노회가 설립되었다. 이곳은 요녕성의 무순, 철령, 영부, 계령, 안동등을 다 포함한 지역으로 많은 교회와 학교가 설립 운영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목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살해 되었다. 산성진 교회에서는

끝까지 숨어 있던 집사 8명이 모두 다 강단에 세워지고 최후에는 책상위에 8명을 달아 매고 책상을 빼버려 죽었던 일까지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라기보다는 조선족에 대한 양갈음의 성격이 더 강했다. 지금은 조선족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없어 교회에 청년이 출석하거든 말씀을 가르치고 입어달라고 부탁하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유로이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족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은 한국 교회가 중국에 말씀을 들려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교회는 극동방송을 통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2) 교회의 수

①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三自教會란 공인교회로서 김성하 목사, 오애은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가 있다.

오애은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석탑교회는 6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 1명, 전도사 1명, 여교사 1명, 장로 4명, 집사 30여명이 있다. 현재는 조선족 신학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한 극동방송국에서 피아노 6대를 기증하여 오애은 목사가 직접 피아노를 지도하고 있다.

② 인정받은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일정한 건물이 없고 가

정에서 보는 교회로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정부가 인정한 책임자가 있는 교회를 말한다.

③ 인정받지 못한 가정교회(지하교회)

건물, 장소가 일정치 못하며 정부가 인정한 책임자도 없고 예배의 제한을 받는 교회를 말한다. 현재의 지하교회는 예전의 지하교회와 성격이 달라서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도 추적을 당하지 않는다.

현재 500여곳의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교회는 70여개이며, 정부가 허락한 교회는 270~360여개가 있다. 또한 요녕성에는 23개, 길림성에는 29개, 흑룡강성에는 1개의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가정교회이다.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교회 자체에서 책임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활동하지 못한다. 특이한 점은 중국교회는 위에서부터 제한을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안산, 무순, 철령, 서가둔, 심양, 요녕성의 큰 도시마다 조선족 교회가 설립되어 있다. 중국에는 1개의 도시에 1개의 교회밖에 세우지 못하지만 조선족이 집결되어 있는 도시에는 교회를 여러군데 세울 수 있다.

길림성 자치주안에는 21개의 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김성한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성례를 집행하는데 이른바 삼자교회라 부른다. 흑룡강성에 교회가 1개밖에 없는 이유는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에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현재 장로가 전부 18명, 전도사가 9명이 있다. 이 가운데 동북신학원에 1기생이 졸업하였고

남경신학원에 2기생이 졸업하였다. 남경신학원에서 졸업한 2명중 하나는 박계성 전도사로 동북신학원 강사로 있으며 다른 한사람은 지인화 전도사로 중국신학원 강사로 있다.

<질문과 답변>

<질문 1> 중국에는 평신도 선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들었는데 기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답 변> 만주족 심양, 길림, 장춘에 전자제품, 방책, 완구류, 의류제품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지만 무역으로는 불가능하다.

<질문 2> 전도사님이 시무하고 있던 교회의 조직과 주일학교의 교육방법,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공과 내용, 교회단체중 이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답 변> 본 교회는 전도사 1명, 장로 1명, 집사 14명이 있으며, 1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청년, 부녀, 노인등의 자치회가 있다. 주일학교 교육은 중국의 종교정책중 18세미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므로 교육은 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린이에 대하여는 굳이 예배를 금하지는 않고 있다. 교회단체 중 침례교가 있는데 교회내에 침례장소를 마련하여 성례를 집행하고 있으며 기독교 잠행전은 장로교 장전과 비슷하다. 또한 통일교에서 연변에 타이어 공장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변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여호와 증인, 물몬교, 안식일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양혜선자매 정리)

주님! 제가 제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中國 基督教 人物 小傳

최초의 중국인 목사

梁發 (1789~1855)

廣東省 高明縣



梁發은 원명이 恭發이고 俗名은 阿發으로 廣東省 肇慶府 高明縣 三洲 古勞村 사람이다. 그는 중년 때에야 비로소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그는 믿은 지 얼마 안되어 선교사역에 뜻을 두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 최초의 중국인 목사가 되었다. 梁發은 청 나라 고종 乾隆 54년(1789)에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던 집안으로 가난으로 인하여 1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골의 사숙에 들어갈 수 있었다. 15세때(1804) 생계곤란으로 공부를 중단하고 광주로 가서 장가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붓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곧 글자를 새기고 인쇄하는 직종으로 바꾸어 4년만에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였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도 문학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의 글자를 새기는 개밀한 솜씨와 스스로 터득한 문필은 후일 선교사역에 보탬이 되었다.

嘉慶15년(1810), 梁發이 21세때 광주의 한 인쇄소에 고용되었다. 이때 개신교 최초의 중국선교사였던 모리슨(Robert Morison)목사가 광주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번역한 사도행전이 이미 완성되어 梁發이 일하고 있던 인쇄소에서 印刷되었다. 아울러 모리슨목사와 밀네(William Milne)목사가 함께 번역한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梁發이 일하고 있는 인쇄소에 넘겨졌는데, 승인을 받아 이 성경의 조판과 인쇄작업이 모두 梁發의 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梁發은 모리슨과 밀네목사를 알게 되었고 기독교와 접촉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嘉慶 20년(1815) 밀네목사는 청나라정부의 체류허가를 얻지 못하여 광주에서 선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국 중국을 떠나 南洋의 말라카에서 신학원과 인쇄공장을 세워 중국선교인

재를 양성하는 한편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중국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梁發은 인쇄관계일 때문에 밀네를 따라 남양에 왔다. 그가 남양에 있을 동안에 밀네씨로 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점점 열성적인 신도가 되어갔다. 梁發은 다음해(1816년) 11월 3일 남양에서 밀네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때 그의 나이는 37세였다. 梁發은 세례를 받은 후 신앙이 더욱 돈독하여져서 선교사역에도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道光元年(1821)말에는 마카오에서 모리슨목사로 부터 목사안수를 받았고 런던선교회의 도움으로 정식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또한 중국 극적을 가졌던 최초의 목사이기도 하였다. 梁發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 성실하게 선교사역에 헌신하였다. 당시 중국과 영국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어 선교사역도 매우 어렵게 되었으나 梁發은 예전처럼 선교에 더욱 정력을 쏟았다. 더욱이 문서방면의 선교사역에 힘을 기울여 여러가지 선교용 소책자를 편찬했으며 자기가 직접 인쇄하여 동포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중에는 '勸世良言'이라는 책이 있는데 당시 광주에 있던 선비들에게 널리 입혀졌다. 그 가운데 특히 花縣으로부터 온 秀才 洪秀全은 道光16년(1836) 廣州貢院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는 후일 이 책의 영향을 받아 上帝會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신앙에 입각하여 太平天國을 건립하였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지만 중국근대사에서의 커다란 사건이 되었다.

道光 14년(1834) 梁發이 선교소책자를 배포하다가 청국의 수배를 받고 伶汀島로 피난하였다. 나중에 다시 남양으로 피난하여 화교들을 전도하였다. 5년 후(1839) 비로소 중국으로 되돌아게 되었는데 이때는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그는 쌍방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일찌기 영국영사를 역임한 적이 있는 馬儒翰(모리슨의 아들)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였다. 그는 일찌기 馬儒翰에게 "만약 영국정부가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중국인을 죽이게 된다면 중국인은 더 이상 영국선교사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영국간의 충돌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고 있었다. 중국과 영국이 남경조약을 체결하자 梁發은 홍콩과 광주등지에서 선교하였다. 그는 말년에도 여전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광주의 각 기독교병원에서 선교하였다. 咸豐5년(1855) 4월 12일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향년 67세였다. 梁發은 죽어서 鳳凰岡이라는 조상들의 묘에 묻혔다.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영남대학이 鳳凰岡으로 이전하여 학교부지를 확충하기 위해 부근의 묘지를 사들이

려고 하자 梁發의 증손녀사위 馮炎公이 편지로 梁發할아버지의 묘가 구매하려는 토지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영남대학은 梁發의 묘 자리를 이 학교의 예배당자리로 사용하여 중국기독교의 위인을 기념하기로 하였다.

梁發은 쉽고 유창한 글솜씨로 수많은 선교용 소책자를 만들어내어 선교의 도구로 삼았다. 그는 항상 學善居士나 學善者의 필명으로 발표하였는데, 그가 발표한 선교소책자로는 救世錄撮要略解, 熟學聖理略論(梁發自敘傳), 眞道問答淺解, 眞道尋源, 靈魂篇, 異端論, 聖經日課初學使用, 勸世良言, 祈禱文, 讚美詩등이 있다. 이밖에 <察世俗每月統記傳月刊>에도 많은 문장이 실려 있으나 여러 저작가운데 “勸世良言”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梁發은 中國基督教史의 위인 가운데 한분으로 일찌기 맥(G.H. McNeur)이라는 사람이 상세한 그의 傳記를 썼다. 그 책의 이름은 “Life of Leung Faat”으로 민국 44년(1955)에 胡簪雲선생이 中譯本 “中華最早的佈道者—梁發”이란 책명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번역본의 뒷면에는 부록으로 양씨의 “勸世良言”全文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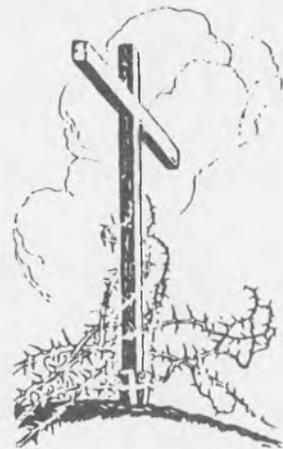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출전》

◻ 시 ◻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송 명 희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옮겨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 중국기독교자료 ◻

중국의 종교정책과 종교사무국에 대한 고찰

홍콩 CCRC 趙天恩 목사

이 글은 四人幫이 물러가고 얼마 되지 않은 1979년 6월에 쓰여졌으나 이 글의 내용은 중국교회의 현상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아직도 자료로서의 가치는 상존한다.

“대륙이 변화되고 있다.”, “대륙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이것은 요즘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말이다. 확실히 요즘의 중국은 2년 반 전 “四人幫”이 활약하던 시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약칭 文革) 전의 대륙에 비하면 더욱 온건해졌으며 민주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다른 각도에서 중국대륙의 변화를 바라본다. 정치가는 중국정권과의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실업가는 대륙의 시장에 관심을 가지며 금융가는 대륙에서의 투자가 증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상인은 중국대륙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들 해외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종교정책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과연 대륙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대

륙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대륙의 형제들을 위한 복음사역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대륙의 종교정책과 그것과 관련된 종교사무국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1. 中國의 宗教政策

1978년 3월 5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가운데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와 무신론 선전의 자유가 있다.” 라는 간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¹⁾ 그 내용은 물론 용어에 있어서까지 기본적으로는 1975년 제4회(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人大)에서 공포된 헌법규정과 동일하다.²⁾ 과거 1954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초안)」 제 3장 88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이 있음을 보게 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1978년 3월 5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 제3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14 조 참조
2) 「전국인민공화국헌법」(1975년 1월 17일 제4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제3장 제28절 참조

그러나 최초의 정책과 관련된 조문은 1934년에 江西 瑞金의 소비에트정부(중공에서 수립된 첫 정권기구)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 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화 소비에트정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에게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전면적인 政·敎분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모든 소비에트국민은 교회를 반대하는 선전을 할 자유를 가진다. 계급주의의 교회는 소비에트법률을 따를 때에만 존재가 허용된다.”³⁾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국가와 유사한 정권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신앙에 대한 태도와 기본정책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의 통치행위를 위반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으며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만 존재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조문의 배후에 숨겨있는 실제내용은 무엇인가? 중국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이론적 토대하에서 수립되었는가? 아래의 문장속에서 우리는 비교적 명확한 답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장은 1950년 9월 23일 《人民日報》사설을 발췌한 것으로 사설의 제목은 「기독교 인사의 애국운동」이다.

“어떤 사람이 물기를 공산당원이 기왕에 철저한 무신론자라면 무엇때문에 또 종교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기를 주장하는가? 종교란 인류가 불가항력이라고 느끼는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을 직면하였을 때 신비현상에서 도움을 구

하고자 할 때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힘이 충분하고 계급제도의 찌꺼기를 철저히 청산한 후에야 비로소 종교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연의 힘에 의존하거나, 자본주의와 봉건제의 奴役(원치않는 노동)을 벗어나지 못할 때 종교현상은 인류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종교신앙에 대해 어떠한 강제수단을 취하자는 의견은 모두 무익하며 해로운 것이다.”⁴⁾

이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 종교현상을 미신, 낙후, 인류의 소극정신의 산물 내지는 계급제도와 자본주의 및 봉건제도의 奴役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점이다. 이 점을 공산당원의 무신론적 관점 내지는 유물변증법과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철저히 소탕되어야 할 것’이다.

2. 종교신앙에 대해 강제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착취제도가 소멸되면 종교현상은 궤연적으로 자연히 소멸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8년이 지난 후인 1979년 3월 15일 차의 인민일보에는 “독자들의 질문에 답함”이란 형식으로 「종교와 신비신」이란 제목의 글이 발표되었다. 위의 관점을 천명하는 외에 더 나아가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주는 정책은 교역자와 신앙인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들

3) 王健明, 《中國共產黨史稿》(卷二)(台北正中, 1965), 第 326 頁

4) 《人民日報》社說 (1950년 9월 23일).

은 종교와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사람의 신앙의 자유(불신앙의 자유를 포함하여)를 간섭할 수 없다. 또한 해방 후 이미 사라진 봉건압박과 수탈제도를 부활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 종교를 이용하여 반혁명활동과 기타 위법활동을 금지한다.” 등등으로 해석하였다.⁵⁾

결국 중국의 종교정책은 許容, 制限, 消滅이라는 여섯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과거나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며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며 중국대륙에 종교현상이 사라질 때에 비로서 소멸 될 것이다. 다른점은 각각의 단계에서 채택하는 수법일 것이다. 문혁기간에는 홍위병들이 사원을 훼손하였고 교회들 폐쇄했으며 불경과 성경을 불태우고 교인들을 박해하였다. 홍위병들은 경험과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에 폭력혁명의 수단을 사용하여 당의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외에 많은 좋지않은 영향을 야기시켰다. 현재는 당의 정규노선으로 돌아가 “부드러운 칼로 머리를 베는” 방법으로 종교를 소멸케 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중국의 종교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무신론과 역사유물론을 견지하려고 한다면 명실상부한 합법적인 종교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2. 中國의 宗教事務局

“宗教事務局”은 중국의 종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중국의 종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따라서 “종교사무국”의 조직과 직책 및 간부의 업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종교정책의 실상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교사무국”은 1951년 1월에 처음 생겼고 당시의 명칭은 “종교사무처”였으며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 속하여 문화교육사업부의 지도하에 있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초안)」 발표후 정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으로 개칭되었고 “종교사무처”도 “종교사무국”으로 개칭되면서 국무원의 부속기관이 되었다. 省, 市, 자치구에 있는 하급기관도 “종교사무처”라 칭한다.

“종교사무국”내에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교협회, 천주교 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 삼자교회등 몇개의 부서가 소속되어있다.

“종교사무국”은 명목상 국무원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으나 실체는 모든 지시를 “중국중앙統一戰線部(약칭 통전부)”에서 받고 있다. 이로써 “종교사무국”이 단순한 종교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외 종교계 인사에 대하여 統戰사업을 수행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다.

북경 “종교사무국”(각지의 “종교사무처”도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의 지도간부와 직원은 모두 공산당원이거나 共國共產主義靑年團(약칭 共靑)단원들로서 종교적 배경이나 종교신앙과 관련된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종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있지 않고

5) 《人民日報》제 4 판(1979년 3월 15일) 참조

어떻게 당의 노선과 지시를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종교활동을 제한할 것인가, 어떻게 종교세력을 약화시켜 마침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종교사무국”내 각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主席”, “副主席”, “秘書長”, “委員”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상 당간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다. 그들의 임무는 고문이나 자문의 위치로서 예를 들어 당간부에게 종교신앙과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거나 외국 종교단체 대표단을 접견할 때 동행하여 종교이론과 관련된 문제에 답하거나 “中國政治協商會議(약칭 政協)”, “人大”회의에 참석하여 “종교신앙자유”, “정치민주”의 구색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국내외의 수많은 기독교 인사들은 이처럼 중국정부에 협조하는 종교인사들의 신앙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 이러한 인사들은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미 공산주의와 무신론 및 유물변증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원래 있던 종교신앙과 저촉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근 30년내 동안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생각도 사람들에게 허다한 의문점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들어 基督教三自愛國運動(약칭 三自)에 참가한 목사, 집사들은 기독교의 “政教分離”와 “정치를 초월하려는” 입장을 수정하였다. “反帝·愛國·社會主義建設”의 구호하에 교회가 끊임없이

국가의 필요와 적기노선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들은 내부비판과 투쟁을 통해서 “삼자”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 신도들을, 많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체포구금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강단에서 공산당의 방침이나 정책을 선전하였으며 당의 지도기관에 신도들의 사상과활동등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술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내외의 기독교도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하겠다.

결국 “종교사무국”은 중국 공인 종교관리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주요 임무는 “신앙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종교를 완전히 소멸케 하려는데 있다.

깨우침과 바람

공산당의 “종교정책”과 “종교사무국”의 실상이 이처럼 철저히 반종교적이라면 현재의 약간 완화된 태도와 변화마저도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표면적인 현상에 미혹되거나 기만당해서는 결코 안된다. 아울러 당장 공산당이 그들의 종교신앙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이러한 사실 자체가 가져다 준 깨달음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러가지 표면 현상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보다 깊은 의미를 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공산당은 모든 것에 정치틀을 얹세운다. 공산당은 모든 문제를 정치투쟁의 표준에 근거하여 취사선택한다. 따라서 종교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사무국”의 개대

와 종교사무에 직접적이고 가혹한 압제수단을 취하던 종래의 정책에서 다시 완화되는 추세로 가는 이러한 사실 자체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보여준다.

1. 중국대륙에서 종교사업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근 30년의 압제와 박해를 겪었음에도 도리어 쇠퇴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책임자들도 종교가 하나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란 점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중공이 문혁기간에 가혹한 압제와 타격을 가해서 종교사업을 소멸하려던 기도가 실패하였음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비교적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원래의 노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변화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륙의 형제자매들이 용감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않았거나, 우리들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신앙의 자유가 당국에 의해 오래전에 없어졌을 것이다. 사실상 문혁후기에 가정 집회는 더욱 증가되었다. 해외 교회와 종교단체도 중국교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믿음의 눈으로 중국대륙의 현재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 능력, 그의 기묘한 사역과 대륙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드러내신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계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은 세상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까이서 경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역사를 주관하려고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모두 결국 좌절하게 된다는 진리는 분명히 현실화 될 것이다.

〈中國與教會〉 第四期(1979.5-6) p.1
(翻譯; 研究部)

저들의 눈망울에 새겨진 주님의 부르심
“너희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나 그 눈길 애써 피하려는 나의 비겁함.
저들의 가슴 구석구석에 절망이 쌓여가고
피의 호소 하늘에 닿는다.

이지러진 저 얼굴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

“너희는 가라, 저들에게로”

그러나 주님,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산더미같은 많은 일들이.

나의 이 핑계.

그들의 마음에 아픔으로 솟아나고.

심판의 손짓이 되고 있다. 웅크린 저 가슴에

웅크린 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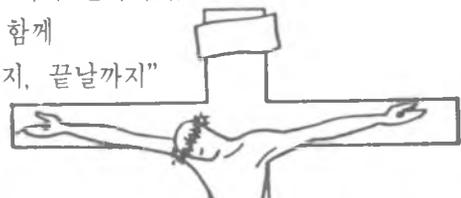
아픔을 씻고 절망을 멈춰

웃음을 피어나게 할 수 있다면

저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 함께

땅끝까지, 끝날까지”



재정보고 (4월)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335,970	임 대 료	300,000
후 원 금	842,000	급 료 (2명)	300,000
교재대금	35,000	회지제작 (5호)	30,000
(성경책, 문화20강)		노인회지원금	10,000
		도서구입	10,800
		복 사	2,700
		기도회경비	42,600
		전 화 료 (3,4월)	48,240
		공테이프구입	26,800
		CBS자료실 등록	10,000
		선교관광 평가회 경비	11,150
		사 무 비	5,950
		우편발송료	25,640
수 입 계 ₩	1,212,970	지 출 계 ₩	823,880
		차기이월 ₩	335,970

재정보고 (5월)

수 입		지 출	
전월이월	389,090	임 대 료	300,000
도서헌금(4월)	100,000	급 료	300,000
후 원 금	1,178,000	세미나강사료	30,000
		노인회지원금	10,000
		도서구입	107,000
		복 사	17,150
		우편발송료	28,250
		사 무 비	6,500
		전 화 료	30,8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선교헌금	10,000
수 입 계 ₩	1,667,090	지 출 계 ₩	989,700
		차원이월 ₩	677,390

♡ 후원자 상황 (4월) ♡

구규식, 고희정, 김구성, 김만섭, 김승원,
김성순, 김신봉, 김순임, 김의득, 김은숙,
김원영, 김한성, 김태수, 남현정, 노미현,
남궁양석, 문정희, 류승남, 박동화,
박미라, 박성주, 박지석, 박상현, 박종표,
박정숙, 박지화, 박영현, 박혜영, 빈미정,
서가원, 서진, 서옥희, 서삼도, 서민혁,
신순남, 신길순, 석귀희, 이흥자, 이지순,
이영구, 윤연자, 양혜선, 이의선, 이성철,
이은자, 이영희, 이영숙, 윤운순, 이덕형,
이석형, 임종명, 전옥규, 정인숙, 정재순,
장경순, 천운철,
동승교회, 충정교회,

♡ 후원자 상황 (5월) ♡

구규식, 고희정, 김구성, 김근수, 김묘경,
김승원, 김신봉, 김순임, 김성순, 김의득,
김은숙, 김원영, 김영석, 김종원, 김한성,
남궁양석, 문정희, 박동화, 박미라,
박성주, 박종표, 박정숙, 박혜영, 빈미정,
서진, 서옥희, 신순남, 신길순, 석귀희,
윤연자, 윤영자, 이덕형, 이지순, 이성철,
이의선, 이은자, 이영희, 이희열, 전옥규,
정인숙, 정재순, 장경순, 최복순, 홍혜련,
한승희, 신흥동, 무명, 선당
동승교회, 충정교회,

각부 활동 보고

연구부 활동 상황

번역과 자료수집

홍콩의 기독교잡지 <時代論壇>에서 '중국대륙 천주교의 발전현황'이라는 글을 입수하였는데 이 글은 <時代論壇>의 기자가 중국천주교 애국교회의 회장인 宗懷德과 대담한 내용이다. 내용중에서 특이한 것은 중국의 천주교회에서 가장 기도해야 할 제목은 교역자의 단절문제이다. 문혁기간 이래로 8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는 신부나 수녀가 양성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00만이 넘는 신도에 겨우 1000명가량의 교역자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시 <時代論壇>의 '국내 종교발전의 새로운 추세'라는 글은 '6.4사태' 이후의 종교박해의 이유, 특히 천주교 쪽의 박해 -- 애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천주교 신부나 주교가 구속된 일을 지칭함 -- 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포된 성직자들이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주교단을 조직하려 하였으며 바티칸과의 접촉을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6.4사태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근래 천주교 주교단회의에서 여태까지 중국 당국이 파견한 성직자회의의 권위보다도 천주교 전통을 따라 주교단회의의

권위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 때문이며 교황청과 관련을 맺기를 원한다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홍콩의 <明報> 3월호에서 중국대륙의 성문제를 다룬 기사를 다루었는데 중국의 성문제에 대한 개념과 범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또 "당신은 중국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책을 가지고 중국교회의 실상에 대해 이의선 자매의 세미나를 통해 공부했다.

연구부는 격주로 세미나를 갖는데 첫째 셋째 금요일에 가졌다.

연구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석귀희 자매는 정기간행부로 옮겨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의선자매는 교육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제 새로이 원은선자매가 연구부에 가입하였다.

연구부의 기도제목은 일군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연구원이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번역부 활동상황

번역부는 그간 《중국기독교 백년사》와 《중국과 기독교》번역에 협력하였다.

5, 6, 7월은 자체 스타디를 통하여 번역시의 요령과 경험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모임을 갖고 있다.

중국에 관한 시사 칼럼은 《중국과 교회》에 실린 글을 빈 미정 회원이 감독하고, 《사막의 단 샘: 荒漠甘泉》이라는 묵상서적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번역하고 공동으로 운문을 하고 있다.

모임시간은 1,3週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하여 있으나 앞으로는 주부회원을 중심으로 한 낮모임과 직장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저녁 모임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모임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더욱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회 원 통 질 ◇

* 박성주 대표간사님이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간의 대륙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 이동화 총무간사님이 8월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으로 선교여행차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 김성순 사무간사님이 8월 6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기독교정병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합니다.

* 안병국 정간부간사님이 지난 4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 중국어과 교수로 부임 하였습니다.

* 박경희 교육부 간사님이 지난 5월에 개인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했습니다.

◇ 기 도 제 록 ◇

* 공석중인 교육부 간사자리에 적절한 주의 일꾼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 9월부터 시작될 '선교 중국어 강좌'의 강사와 강좌 내용, 홍보등의 문제가 지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 대륙교회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보다 활발한 사역이 행해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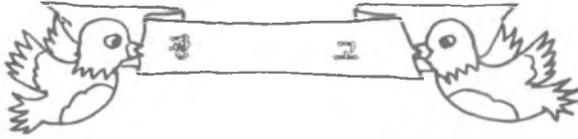
* 대륙교회의 필요를 알리는 '기도편지'가 속히 발행될 수 있도록

* 한국내 여러 중국선교 단체와의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 인천 성광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교포 관광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모국방문 중국교포들에 대한 전도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 세미나 : 6월 정기세미나가 6월 25일(月)저녁 7시에 본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중화 한성교회에서 사역하시며 또 중국복음선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 王嗣岳 전도사님을 모시고 “중국 교회사 (당나라 경고에서 청초 천주교까지)”라는 제목으로 개최됩니다.

* 수련회 : 본 선교회 하기 수련회가 오는 7월 16일 저녁부터 17일까지 남양주군 화도면 구암리 새터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16일 저녁 7시 선교회 사무실에 집결해서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7월 7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기도 후원회 : 매 주 토요일 낮 12시에 본 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본 선교회의 중국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건회 : 본회 사무실에서는 매일 9시 반에서 10시까지 ‘생명의 삶’(두란노서원)의 교재로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 회 지 : 본 선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회지는 6월부터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편집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후기

* 이번호부터 격월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회지명을 “중국을 주께로”로 정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본선교회가 창립될 당시에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였기에 간사협의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채택된 것이다. “주여 중국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에도 마감일이 다 되어서야 서둘러 회지를 제작하는 전철을 다시 밟고 말았다. 격월로 발간하기로 한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미리미리 준비함으로써 충실한 내용의 회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다. 다음호부터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것을 재삼 다짐해 본다...*

